農業構造의 概念과 構造理論：試論*

李　貞　煥
首席研究員, Ph.D.(農業經濟學), 農業部門室

Ⅰ. 第五次 經濟社會發展 五個年計劃의 農林水産部門 計劃을 보면「生産性의 向上과 農家所得增大」를 韓國農業의 發展目標로 설정하고 農業構造改善을 이를 위한 첫번째 政策方向으로 제시하고 있다(經濟企劃院, 1981). 農業構造改善에 관한 이와 같은 政策的 관심 혹은 意志 표명은 이미 1960年代初 農業基本法을 둘러싼 論議당시부터 시작된 것으로 이미 이 용어가 農政 혹은 農政計劃에 도입된 것은 20여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政府文書 뿐만 아니라 學者들의 政策提言 혹은 學術論文 등에도 農業構造, 構造變化, 構造政策이란 용어가 매우 빈번히 그리고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듯이 이용되어 왔음은 주지 하는 바와 같다(崔洋夫, 1984 a).

그러나 農業構造란 필자가 아는 한 農業經濟學 혹은 經濟學에서 그 概念이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못한 듯하다. 대부분의 農業經濟學 敎課書에서 農業構造(farm structure 혹은 agricultural structure)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理論을 제시하는 예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사실이 그러한 사정을 잘 말해 주고 있다. 그 概念이 確立되어 있지 못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共通的 認識이 성립되어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주 사용될 뿐만 아니라 사용할 때마다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코뮤니케이션의 장애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本小論은 農業構造, 農業構造의 變化, 그리고 農業構造政策의 概念을 정리하여 그와 같은 혼란과 장애를 극복하고, 나아가서 農業構造에 관한 理論體系를 정립해 보려는 시도의 하나이다.

그런데 用語의 定義問題는 자칫 추상적 논란으로 발전하여 그 概念을 確立하려는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도리어 혼란을 가중시키게 될 위험이 있다.[1] 그와 같은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本稿에서는 먼저 農業構造란 概念이 왜 (農業)經濟 分析과 (農業)政策樹立에 필요한가 하는 實用的 問題를 검토함으로써 그 概念을 말하자면 귀납적으로 정의하려고 한다. 學術的 概念의 存在 의의는 그 概念自體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概念이 갖는 分析上의 必要性과 그 概念이 함축하는 現實世界에서의 기능에 있기 때문에 이와

* 本論文의 初稿를 읽고 유익한 조언을 하여 주신 崔洋夫, 姜奉淳博士(農經硏)에 감사한다. 아울러 本論文은 農經硏의「農地 및 勞動의 流動性과 農業構造政策」硏究의 일환으로 作成된 것임을 밝혀 둔다.

[1] 韓國農業經濟學會 主催「農業構造의 現實과 調整政策」에 관한 심포지움에서도 農業構造의 概念에 관한 논란이 있었다(1984. 7. 6).

같은 접근방법은 유익하고도 효과적인 것이라고 생각된다.

Ⅱ. 農業經濟學 혹은 農業政策이 갖는 기본적 관심은 農業이란 産業이 어떤 成果(performance)를 나타낼 것이며 그 成果가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는 問題이다. 그렇다면 農業의 成果는 무엇으로 평가될 수 있는가? 그것은 國民 혹은 國民經濟가 農業이란 産業에 무엇을 기대하고 요구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차원에서 評價될 수 있을 것이다(Penn, Babb 1976 등 參照).

(1) 農産物이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좋은 질로 생산되는가?

(2) 農産物 生産이 얼마나 効率性있게 이루어지고 얼마나 값싼 價格으로 供給되는가?

(3) 農産物供給이 市場條件의 變化에 얼마나 신축적으로 반응하고 적응하는가?

(4) 農産物生産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厚生은 얼마나 向上되고 있으며 또 공평한가?

微視經濟學의 企業理論은 價格과 技術의 變化에 따라 企業의 行動이 어떻게 변동하는가를 보여 주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한 産業의 성과가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치밀하게 分析할 수 있다. 農業의 成果를 분석하는데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이와 같은 접근방법은 한 産業을 구성하는 모든 生産單位는 同質的이며, 利潤追求라는 동일한 行動原理를 가지고 있다라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한 産業의 行爲(conduct)와 成果(performance)는 대표적 企業(representative firm)의 利潤極大化 行動原理에 의하여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한 産業을 구성하는 生産單位의 行爲와 成果는 각 生産單位의 規模와 組織 그리고 生産要素에 대한 所有權과 支配權 등에 따라 변화하고 또, 한 産業은 대부분의 경우 行爲와 成果가 다른 다양한 生産單位에 의하여 構成되어 있다. 産業 全體의 行爲와 成果는 곧 각 生産單位의 行爲와 成果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이므로 産業의 成果는 그것을 構成하는 生産主體의 性格과 그리고 그들 사이의 관계에 따라 변동하게 될 것이다.

요한센(Johansen)과 사토(Sato)는 각각 生産效率이 서로 다른 生産單位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에 따라 그 산업의 성과가 어떻게 달라지며, 그 産業의 生産函數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치밀한 分析을 통하여 보여 주고 있다. 그들은 産業全體의 生産效率性, 規模의 經濟性(returns to scale), 代替 彈力性, 偏向的 效率增大(biased efficience gain), 供給彈力性 등이 모두 그 産業을 구성하는 生産單位의 效率分布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넬슨과 윈터(Nelson and Winter 1974, 1982) 그리고 다위드(David 1975, pp. 65-85)등도 다양한 生産單位의 分布와 그 變化를 통하여 産業의 行爲와 成果가 변화하게 된다는 理論을 제시하고 있다. 이 문제를 農業의 경우에 초점을 맞추어 좀더 상세히 검토해 보기로 하자.

Ⅲ. 農業生産을 담당하는 主體(生産單位)의 性格은 經濟發展 段階에 따라 變化한다. 예를들면 1950年代 이전의 韓國農業은 대부분 食糧自給에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自給的 零細農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들은 차츰 生産物을 판매하여 보다 많은 (現金)所得을 획득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드디어는 모든 自給生産要素에 대한 費用까지도 공제한 利潤을 추구하게까지 되어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農家의 性格變化는 동일한 價格, 동일한 技術에 대한 반응에 변화를 일으키고 그에 따라 農業이란 産業이 나타내는 成果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가령, 「農家主體均衡論」(中島千尋)은 農家의 性格變化에 따라 價格變化에 대응한 行動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치밀하게 分析하고 있다. 즉 農業의 成果는 단기적으로는 價格과 技術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價格과 技術이 나타내는 效果는 農家의 性格에 의하여 규정된다. 日本에서 1970年代부터 農業構造에 대한 대부분의 論文이 農家의 性格規定과 그 變化 메카니즘에 대한 것이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생각된다(梶井, 伊藤, 御園).

우리는 위에서 農業生産主體로서의 農家의 性格이 經濟發展에 따라 변화함을 지적하였으나, 한 시점에서 볼 때 모든 生産主體의 性格이 同一하지 아니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가령 韓國農業을 담당하고 있는 生産主體의 性格을 살펴본다면 그중에는 自給指向的인 것도 일부 있을 것이고 半商業的인 것도 있을 것이며, 利潤指向的인 것도 일부 있을 것이다. 또한 일부에는 生産要素를 共同所有하거나 共同利用하는 것도 있을 것이며, 個別 독립적인 것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이같이 다양한 生産主體들 사이의 상호관계도 시대와 사회에 따라 변화한다. 가령 米穀部門은 강력한 政府 관리하에 있었으므로 米作農家들은 生産物市場에서나 資材市場에서 서로 경쟁할 필요가 없었다. 즉 生産物은 일정한 價格에 政府에서 수매하고 農藥과 肥料는 일정한 價格에 供給되므로 다른 農家가 어떤 生産活動을 전개하는가가 거의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최근 畜産部門의 경우를 보면 企業畜産과 小規模畜産農家 사이에는 치열한 價格競爭과 飼料확보 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그들 사이의 경쟁관계는 필시 畜産部門 全體의 行爲와 成果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이와같이 다양한 성격의 主體들이 어떻게 分布되어 있으며 서로 어떻게 영향하고 있는가에 따라 동일한 價格과 技術이 나타내는 農業의 成果는 전혀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은 農業이란 産業을 分析對象으로 하거나 政策對象으로 하는 경우 각 生産主體의 性格과 그 分布 그리고 그들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지 아니하면 안된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여기서 農業構造란 槪念의 必要性에 직면하게 되며 또 그것이 어떻게 정의되어야 할 것인가가 명백하여 졌다고 생각한다. 즉 農業構造란 價格과 技術[2]이 農業이란 産業의 成果에 미치는 效果를 규정하는 基本的 틀—즉 農業生産主體(單位)의 性格과 그 分布(構成) 및 主體間의 관계를 지칭하는 개념이며 이 개념은 農業이란 産業의 成果를 분석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다. 또한 構造變化란 곧 生産主體들의 性格이 변화하고 그 構成이 변화하는 것을 말하

[2] 여기에서 다음 課題로 넘어가기 전에 技術과 技術變化란 용어의 槪念에 대하여 조금 언급해 두는 것이 本小論에 대한 理解를 도울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技術이란 用語 역시 구조만큼이나 그 개념이 통일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본래 微視經濟學에서 技術이란 投入—産出關係(生産函數)를 지칭하는 개념이고, 技術變化란 그 關係의 變化를 뜻하는 개념으로 도입되었다. 즉 技術이란 個別 工場이나 農場에서 각종 生産要素를 生産物로 변화시키는 구체적 과정을 지칭하는 개념이었으며 本稿에서도 그러한 개념으로 정의하려고 한다.

技術이란 用語에 혼란이 생긴 것은 이같이 企業內(Intra-firm) 槪念으로 설정된 것을 産業分析에 그대로 확장하여 産業全體의 投入—産出關係 역시 技術이라고 정의하게 된 데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이같은 혼란은 生産函數의 개념에 대한 혼란으로 연장되었으며 이러한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요한센(Johansen pp.4-27)등은 微視的 生産函數, 巨視的 生産函數로 區分하고 微視的 生産函數를 다시 ex-post function ex-ante function(혹은 intra-firm function과 inter-firm function)으로 區分하였다. Mansfield (pp.10~12)등은 intra-firm function의 배후에 있는 것을 techique, inter-firm function의 배후에 있는 것을 technology 라고 구분하였다. 그렇게 본다면 構造란 巨視的(産業的)生産函數를 결정시켜 주는 개념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며, 農業構造政策이란 특정한 性格의 生產主體를 의도적으로 육성하여 農業의 成果를 향상시키려는 것을 말한다. 물론 構造, 構造變化, 構造政策이란 槪念은 非農業部門과 다른 經濟學分野에서도 필요한 개념이며, 이미 產業構造論, 產業組織論, 國際關係論 등에 도입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生產主體의 性格을 규정하는 기준, 그리고 構造變化를 설명하는 理論의 내용이 다를 뿐이다.

Ⅳ. 그러면 農業生產 主體의 性格이란 어떻게 파악되어야 할 것인가? 農業生產主體의 性格規定은 價格과 技術에 대한 그들의 反應(行動)과 成果가 어떤 性格的 要素에 의하여 규정되는가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렇게 볼 때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기준이 제시될 수 있다.

① 生產主體의 行動動機에 따른 性格規定…自給農, 半自給農, 半商業農, 商業農, 企業農

② 生產主體의 就業構造에 따른 性格規定…專業農, 兼業農, 副業農

③ 生產要素 특히 土地의 所有 관계에 따른 性格規定…自作農, 賃借農(혹은 小作農), 自小作農

④ 經營形態에 따른 性格規定…專門農, 複合農, 多角農

⑤ 企業形態에 따른 性格規定…家族農, 協業農, 法人農

⑥ 規模에 따른 性格規定…零細農, 小農, 中農, 大農.

生產主體의 行動動機에 따라 동일한 價格變化에 대한 農產物 供給反應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 中島 등에 의하여 치밀하게 분석되고 있음은 이미 앞에서 지적하였고, 土地의 所有關係에 따라 역시 集約度와 生產效率 등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사실도 古典的 命題에 속한다. 또한 專業農과 兼業農 사이에 農業投資行動, 土地利用方式, 그 生產效率 등에 뚜렷한 차이가 있음은 특히 日本의 경험에서 잘 分析되고 있다(中安, 李貞煥外 1983 c). 規模의 차이에 따라 資本의 利用效率, 資本投資行動, 위험에 대응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음은 또한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專門化에 따라 土地利用方式, 供給反應 등이 변화하게 됨도 익히 아는 바와 같다. 다만 앞으로 더욱 필요한 것은 이와같이 다양한 성격의 農業生產 主體가 일정한 分布를 가지고 併存하는 경우 產業으로서의 農業의 行動과 成果가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는 것이며, 이것은 앞으로 더욱 깊이 연구되어야 할 農業經濟學의 硏究課題라고 생각된다.

앞에서 제시한 여섯 가지 기준을 놓고 볼 때 韓國의 農業構造는 「半商業的」이고 「專業的」이며 「自小作的」인 「米作中心」의 「小規模」「家族農」이 그 中心을 이루었으나 「自作的」인 「零細農」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일부에는 「專門的」인 「商業農」과 「企業農」이 併存하는 構造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시대에 따라 당시의 農業의 行動과 成果를 가장 결정적으로 규정하는 要素가 다르다. 해방전 같으면 土地所有 관계가 가장 중요한 要素였다고 생각되는 반면 해방 후에는 規模와 行動動機가 중요한 要素로 作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日本 같으면 就業構造가 무엇보다 중요한 要素라고 볼 수 있고 아마 韓國農業에서도 앞으로 就業構造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다. 따라서 해방 전의 韓國農業構造는 「零細小作農構造」라고 표현할 수 있고 현재의 構造는 「半商業的 小農構造」라고 특징지울 수 있는 반면 日本의 農業構造는 「兼業的 小農構造」라고 표현함이 적당할 것이다. 아마도 美

國의 農業構造는 「商業的 家族農」이라고 지칭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V. 다음에 제기되는 의문은 農業構造는 어떤 要因에 의하여 어떤 메카니즘을 통하여 變化되는가? 하는 것이다. 本稿에서는 먼저 構造變化의 메카니즘으로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려고 한다.

農業內外의 條件에 어떤 變化가 나타나면 각기 다른 性格의 生產主體는 각기 다른 영향을 받게 된다. 즉 그 變化에 의하여 利得을 보는 그룹과 損失을 보는 그룹이 발생하고, 이것이 결국은 그룹간의 競爭力에 변화를 일으킨다. 그 결과 利得을 볼 수 있는 性格的 特性을 갖는 生產單位가 새로이 창설되기도 하고, 損失을 보는 그룹의 主體들이 점차 利得을 보는 그룹과 같은 性格으로 변화를 추구하거나 탈락함으로써 점차 利得을 볼 수 있는 性格的 特性을 갖는 主體의 分布가 많아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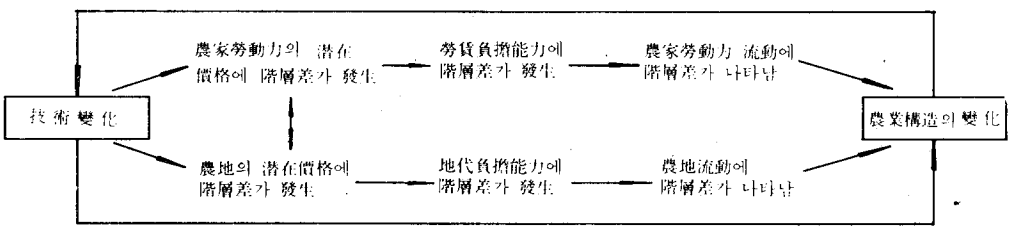
이것은 일종의 適者生存 槪念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른바 進化論的 理論(evolutionary theory)과 같은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벨슨과 윈터(1974, 1982)는 다양한 性格의 企業들이 與件變化에 따라 어떻게 進化, 탈락하며 그 결과 產業全體의 成果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分析하고 있다. 이것이 곧 構造가 變化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그와 같이 構造變化를 유발시키는 要因은 무엇인가? 그 要因이란 바로 새로운 性格의 生產主體를 요구하고 主體間의 競爭力에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라고 이해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네 가지 要因을 생각할 수 있다.

무엇보다 먼저 農業構造의 變化는 기본적으로 經濟社會의 發展에 의하여 規定된다. 經濟發展에 따라 人間의 價値觀과 欲望에 變化가 나타나고 그에 따라 새로운 商品이 등장하기도 하고, 또 기존의 需要構造에 變化가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農家가 보유하고 있는 生產要素—家族 勞動力과 所有耕地—의 機會費用에 변화가 나타난다. 이와같은 變化는 必然的으로 農家에게 새로운 動機, 새로운 就業構造, 새로운 經營形態를 요청하게 되며, 그와 같은 요청에 순응하는 농가가 보다 많은 利得을 얻고 보다 높은 競爭力을 갖게 된다(李貞煥 1983 a, 御園).

農業構造를 變化시키는 두번째 要因은 技術이다. 技術은 規模의 經濟性을 결정하고 專門化의 有利性을 결정하며, 資本 所要量을 변화시켜 새로운 生產單位의 침입을 규제하기도 하고 기존 主體의 生產活動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 역시 生產主體間의 競爭力에 變化를 일으킨다(Lu). 이 가설적 메카니즘을 圖式化하면 〈그림 1〉과 같다. 技術이 變化하면 家族勞動力과 農地에 대한 替在價格變化에 階層差가 나타나고 그 결과 勞賃負擔能力과 地代負擔能力에 階層差異가 나타난

그림 1 技術變化와 農業構造變化의 상호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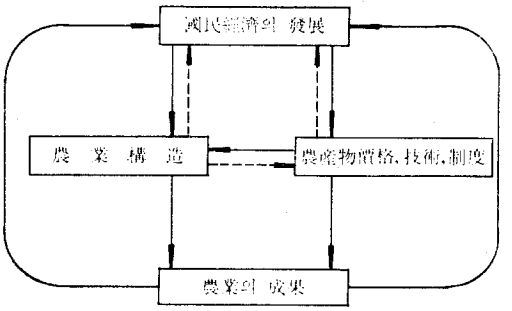
다(李貞煥 1986 b, Lee 1980). 이러한 階層間의 競爭力 差異에 의하여 農地와 勞動力의 流動方向이 결정되고 드디어는 農業構造의 變化—農家의 性格變化와 그 分布의 變化—가 나타난다.

農業構造를 변화시키는 세번째 要因은 價格이다. 가령 農產物價格의 전반적 하락은 小規模農家로 하여금 兼業化를 불가피하게 하기도 하고 반대로 高農產物價格이 兼業農家를 溫存시키기도 한다. 또 雇傭勞賃의 上昇과 그에 따른 年雇의 감소가 大農의 競爭力을 약화시키기도 하고 土地價格의 上昇이 大農의 出現을 저해하고 零細農을 고착시키기도 한다(李貞煥 1983 b, Babb 1979 b). 또 價格의 불안은 複合農의 有利性을 높인다.

農業構造를 변화시키는 네번째 요인은 制度이다. 누진적 農地稅 制度는 大農의 競爭力을 약화시키고 土地所有와 去來에 관한 制限은 大農의 增加를 억제한다. 대부분의 制度는 특정한 성격의 生產主體를 억제 혹은 고무할 目的을 갖는 것이 보통이므로 制度는 農業構造를 變化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要因이라고 볼 수 있다.

앞에서 經濟發展, 技術, 價格 그리고 制度가 農業構造를 變化시키는 要因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나 반드시 이들 사이에 이와 같이 일방적인 因果 관계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農業構造의 變化가 經濟發展을 규제하기도 하고 또 農業構造가 價格과 技術의 변화를 유발시키기도 한다. 이같은 관계는 技術이 生產要素의 價格(限界生產價値)을 결정하기도 하지만 價格이 技術을 유발시키기도 한다는 誘發理論(induced innovation)의 개념과 흡사하다. 가령 大農構造는 大型機械技術體系의 발전을 더욱 促進시킬 것이며(Lee 1983), 副業農의 增加는 農產物價格을 상승시키는 要因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림 2 農業構造理論의 기본체계



農業構造, 經濟發展, 價格, 技術, 制度 그리고 農業의 成果와의 관계를 圖式으로 要約하면 〈그림 2〉와 같다. 즉 農業의 成果는 農業構造, 價格, 技術, 그리고 制度 등 네가지 要素에 의하여 결정된다. 한편 農業構造는 經濟發展, 價格, 技術, 그리고 制度 등 네가지 要因에 의하여 變化되며 同時에 이들의 變化를 유발시키는 要因이 되기도 한다.

Ⅵ. 農業構造란 農業生產主體의 性格과 그 分布(構成) 그리고 그들 사이의 관계를 지칭하는 槪念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이 槪念이 經濟分析 혹은 政策樹立에 필요한 것은 價格이나 技術이 農業이란 產業의 成果에 미치는 效果를 규정하는 기본적 틀이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農業構造 槪念은 企業理論을 產業理論으로 확장하는데 필요한 개념이다.

農業主體의 性格은 生產主體의 行動動機, 就業構造, 生產要素의 所有관계, 經營形態, 企業形態, 規模 등 여섯 가지 要素에 의하여 파악할 수 있다.

이들 여섯가지 要素 중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도 耕地規模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가령 어떤 生產主體의 就業構造, 經營形態, 生產動機 등은 그 生產單位가 가지고 있는 耕地規模에 의하여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이것은 農

業이란 產業이 갖는 특성으로서 대부분의 農業構造論議가 土地問題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農業構造를 生產要素의 結合比率로서 표현하려는 것은 그것에 의하여 당시의 農業生產單位들이 갖는 성격과 그 分布變化가 대표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耕地規模 혹은 生產要素의 結合比率이 곧 農業構造라는 생각은 本質과 現象을 혼돈하는 것과 같다.

農業構造는 農產物 價格, 技術, 制度, 國民經濟의 發展 등에 의하여 變化되지만, 동시에 農業構造의 變化는 農產物價格, 技術, 制度, 經濟發展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 영향관계에 있다. 이와 같이 農業構造와 農業의 成果, 農業構造와 農產物 價格, 技術, 制度, 經濟發展이 상호 영향하는 관계를 分析하고 설명하는 理論體系를 農業構造理論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農業經濟學이 기본적으로 價格理論에 의존한다는 점에서는 다른 經濟學 分科들과 다를바 없지만 바로 다른 經濟學 分科의 構造理論과는 다른 構造 理論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서 그 學問的 특성과 독자성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農業構造理論의 그같은 특성은 農家라는 生產主體의 특성, 土地라는 生產要素의 특성, 그리고 自然力에 의한 生物生產이라는 생산공정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參 考 文 獻

經濟企劃院, 「第 1 次 經濟社會發展 五個年計劃」, 1981.

金英植, "農家所得成長과 農業構造政策," 「農村經濟」 2-3 (1979), pp. 20～28.

李貞煥, "中小農의 相對的 增加原因과 農地流動化 戰略," 「農村經濟」 6-3(1983a), pp. 1～11.

_____, "大農의 相對的 減少原因과 새로운 大農層의 形成展望," 「農村經濟」 6-4(1983b), pp. 31～38.

_____外, 「農業機械化 長期計劃을 위한 基礎硏究」, 韓國農村經濟硏究院, 1983c

朱宗桓, "農業構造改善의 方向摸索—農民層 分解促進이냐, 營農의 組織化냐—," 「農業經濟硏究」 24 (1983), pp. 1～10.

崔洋夫, "韓國에 있어서 農業構造의 變化와 構造政策의 새로운 構想," 「農業構造問題의 現實과 調整政策」(韓國農業經濟學會 創立 25周年 記念심포지움 論文集), 1984a, pp. 5～37.

_____, "韓國에 있어서 農家經濟에 대한 인식과 農業經濟學," 「韓國經濟學會 1984年度 學術發表大會論文集 Ⅱ (1984b), pp. 687～713.

許信行, "農業의 發展段階와 構造政策," 「農村經濟」 5-2(1980), pp. 2～10.

小武一, 基本法 農政を超えて, 「小倉武一著作集」第 6 卷東京：農山漁村文化協會, 1983.

御園喜博, "小農經營の發展と 農產物價格形成 農民層分解の 論理," 「土地制度史學」 52, pp. 23～47.

中嶋千壽, 「農家主體均衡論」, 東京：富民協會, 1983.

中安定子, 「農家の世代交替と 農業」, 東京：全國農業會議所, 1984.

伊藤喜雄, "あたらしい上層農について", 「現代日本農業の 諸局面」(阪本, 梶井編)

梶井功, 「基本法農政下の 農業問題」

Babb, E.M.,"Some Causes of Structural Change in U. S. Agriculture," *Structure Issues of American Agriculture*, USDA AER 438(1979a), pp. 51～60.

_____, "consequences of Structural Change in U.S Agriculture," *Stucture Issue of American Agriculture*, USDA AER 438(1979b) pp. 61～64.

David,P.A., *Technical Choice. Innovation and Economic Growth*, Cambridge Univ. Press, 1975.

Ehrenshaft, Phil., "The Industrial Organization of Modern Agriculture," *Canadian J.Agricultural Economics* 31(1984), pp. 122～133.

Gardner B.B and R.D.Pope, "How is Scale and Structure Determined in Agriculture," *American J.Agricultural Econonomics* 60(1978), pp. 295～302.

Johansen, L.,*Production Function*, Amsterdam: North-Hollond, 1972.

Lee, J.H., "The Measurement and Sources of Technonological Change Biases," Economica 50(1983) pp. 159-174.

_____, Farm Technological Change and Farm Land-Prices: Postwor Japan," Nonkyung Ronchong 36(1980), pp. 33-44

Lu,Yao-Chin, "Technological Change and Structure," *Structure Issue of American Agriculture*, USDA AER 438(1979), pp.121-127.

Mansfield, E., *The Economics of Technological Change* W.W.Norton, 1968.

Nelson, R. R.and S.G.Winter, "Neoclassical vs.Evolutionary Theories of Economic Growth," *Economic Journal* 84(1974), pp. 886-905.

_____, *An Evolutionary Theory of Economic Change* London: The Belknap, 1982.

Penn,J.B., "The Structure of Agriculture: An Overview of the Issue," *Structure Issues of American Agriculture*, USDA AER 438(1979), pp. 2~23.

Sato,K., *Production Function and Aggregation*, Amsterdam: North-Holland, 1975.

Scherer,F.M., *Industrial Market Structure and Economic Performance*, Chicago: Rand McNally, 1971.